

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(2022년 1월)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말레이시아, “2021년 12월부터 내년 2월 까지 냉동닭 수입허용”

- 다툽 세리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기업들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냉동 닭을 수입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공식 발표
- 농림 축산 식품부는 이 허가가 말레이시아 닭고기 산업의 공급이 안정될 때 까지 잠정적 조치라 함
- 말레이시아 수의검역청(DVS)의 통계에 따르면 닭고기 수급이 2021년 10월과 11월에 18% 부족함을 확인
(말레이시아 닭고기의 일일 수요는 3,762톤 또는 200만 마리)
- 전국적인 닭고기 수요 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 이동 통제 명령(MCO) 시행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호텔 및 식당의 영업 재개로 인한 닭고기 수요 증가 및 양계장의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분석
- 이번 조치는 월 최대 10,000톤(약 550만 마리)를 수입함으로써, 일시적인 닭고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
- 냉동 닭고기를 수입하려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(SSM)에 등록해야 하고 냉장 시설이 있어야 함
- 정부는 냉동 닭고기 수입 승인된 국가의 할랄 도축장에서만 수입 허가함
- 농림 축산 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, 닭고기 수급이 안정화되면 냉동 닭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함

2. 말레이시아 인플레이션 상승,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11월 3.3% 상승

- 2021년 11월 말레이시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, 운송 및 주택, 물, 전기, 가스 등 다양한 품목 증가에 영향을 받아 전년 동기 120에서 124로 3.3% 상승
-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.6%
- 11월 닭고기 가격은 전 세계의 사료비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6.7% 상승
- 11월 우유, 치즈, 계란은 4.2%, 야채 가격은 3.4% 증가
- 유가 상승률은 27.6%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전기 요금은 34.6% 상승
- 의류·신발(△0.4%), 비타민(△1.7%)은 가격이 하락
- 타 국가 전년대비 11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, 미국 6.8%, 유로존 4.9%, 한국 3.7% 상승
- 인플레이션은 연료, 식품 및 철강과 같은 건설 관련 자재의 글로벌 가격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정부는 도매협동조합을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 공급을 늘리고, 농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, 인접 국가로부터 수입 공급을 늘리는 등 특히 식품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 시행 예정
- UOB 글로벌 경제 및 시장 조사 (UOB Global Economics & Markets Research)는 공급망 병목 현상,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,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에 따른 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2차 효과를 고려하여 2022년 인플레이션 3.0% 상승 전망

* 출처 : 2021년 12월 22일, The sun/ The Statistics Department (DOSM) 통계청

3.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



- 말레이시아 수의 검역청(DVS)은 12월 6일 페락주의 비도르와 성카이, 12월 7일 파항주의 제란투트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형 2형을 보유한 멧돼지 발견 최초 발표
- 12월 20일 말라카 지역내 7개의 상업용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(ASF)발생
- 2022년 1월 7일 말라카 지역내 16개의 상업용 돼지 농장으로 확산, 돼지 1,864두 도살 처리, 지역내 빠른 확산
- 2022년 1월 13일 말라카 지역내 35개의 상업용 돼지 농장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및 통제 지역으로 지정 (감염확산 차단 될때 까지 무기한)
- 정부는 돼지및 돼지고기 이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, 감염 지역의 모든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, 임상 검사 및 샘플링 노력을 강화함
- 정부는 돼지 사체를 강, 웅덩이, 과수원 및 기타 유사한 장소에 버리지 않도록 사육장 농부들에게 계도 공지

* 출처 : 2021년 12월 17일, Bernama / 2021년 12월 25일, Bernama
2022년 1월 8일, Bernama / 2022년 1월 13일, Bernama

□ 말레이시아 포트 클랑 악천후로 인한 화물 처리 문제 해결

- 말레이시아 포트 클랑이 2021년 12월 17일 악천후로 인한 홍수 등 여러 요인으로 화물 처리가 혼잡하였으나, 12월 24일 평균 물동량 80% 회복
- 정기적으로 포트 클랑이 하루에 35,000TEU(20피트 등가 단위)를 처리하였으나,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악천후로 인해 30%인 하루에 9,970TEU만 처리되어, 미처리 70%로 항만 운영의 혼잡을 초래했다고 분석
- 12월 23일에는 27,000 TEU의 화물을 작업 하여, 동기간 대비 80%로, 이는 화물 작업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
- 교통부 장관 다투세리 닥터 위카시웅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의 항만 및 물류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하여, 포트클랑이 2020년 1,324만TEU에 비해 2021년 12월 28일 기준 1,364TEU(20피트 등가 단위)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였다고 발표
-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일례로 "2021년 6월 항만 및 물류 부문 근로자를 위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출시로 항만 및 운송업계가 완전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." 말함
- 이러한 성공의 큰 부분은 Port Klang 당국이 이끄는 Port Klang의 물류 업체와 정부 기관의 헌신과 조정된 노력 때문이라고 발표

* 출처 : 2021년 12월 22일, The sun/ 2021년 12월 29일, The Star

□ 말레이시아 해양단속국(MMEA)은 랑카위 해역에서 케툼 잎 밀수 적발



- 크다주와 펠리스주 해양단속국(MMEA) 소장인 Mohd Zawawi Abdullah 해군 제독은 일요일(12월 12일) 오전 3시 30분경 플라우 덴당에서 동쪽으로 약 5해리 떨어진 곳에서 보트를 발견, 순찰선을 배치하여 단속했다고 발표
- 선원들이 도주하기 전에 여러 물체를 바다에 던졌으나, 회수된 물건을 조사한 결과 RM125,000(한화 3,500만원) 상당의 약 695kg에 달하는 케툼 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7개의 검은색 패키지를 발견 단속함
- 밀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운송업자들은 선적당 RM350(한화 10만원)에서 RM800(한화 22만원)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
- 이 사건이 케툼 잎 남용에 대한 독극물법 30(3)조에 따라 조사하고 있음
- 케툼 잎은 아편과 같은 효과와 피로를 퇴치하고 피로를 개선하는 코카인과 같은 자극 효능으로 독극물법 30(3)조에 따라 조사하고 있음

- **방글라데시는 말레이시아 재계에 말레이시아와의 FTA 체결에 협력을 촉구**
 - 방글라데시 Tipu Munshi 상무장관은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에 협력을 촉구
 - "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재계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하다." 방글라데시 상무장관은 방글라데시 굴산클럽에서 열린 '방글라데시 FTA의 기회와 도전' 창업설명회 주빈으로 참석해 발표
 -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(BMCCI)는 'BMCCI 20주년 기념행사'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
 -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(BMCCI) Raquib Mohammad Fakhru 회장은 "양자 동맹 구축을 통해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잠재력 발굴에 역점,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무역 파트너의 이익을 위해 무역과 경제적 상호 작용을 확대할 것"이라고 발표
 - 방글라데시는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에 대한 면세 혜택을 얻고, 말레이시아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고자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(FTA, free trade agreement)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
 -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방글라데시에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, 특히 방글라데시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산업 원료를 저가로 수입을 원함

* 출처 : 2021년 12월 9일, Financial Express